

고고자료로 본 조선시대의 젓가락 연구

정의도*

〈목 차〉

- I. 머리말
- II. 삼국시대~고려시대 젓가락 자료와 고찰
- III. 조선시대 젓가락 자료
- IV. 조선시대 젓가락 사용의 고고학적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정치 이념이 성리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성리학적 가치를 현실세계에 실현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이어졌을 것이다. 고려시대까지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많은 양의 도자기를 부장하는 풍습은 고려시대 이래 중국 북방민족과의 교류에서 시작된 것으로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대변하는 장례서인 주자가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고려시대 이래의 장속이 변화하여 새로운 장속이 정착되기까지 전쟁과 기아 등의 상황을 합하여 조선의 개국 이후 200년이 넘게 소요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장속은 일변하여 분묘에 수저를 부장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 백자 사발에 상평통보 한 두점이 부장품의 전부이고 그나마 아예 넣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한 장속의 변화에도 숟가락은 조선시대 전체의 밥상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장속은 변하였다고 하여도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주로 하는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묘 출토 자료로 본 조선전기 젓가락의 사용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이 나고 경신대기근을 지나 18세기에 들어 영정조시기 정국의 안정은 임란이후 조선에 유입된 새로운 음식물의 등장과 새로운 조리서의 발간, 저장음식의 발달 등 당시의 밥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주었을 것으로 생각

* 한국문화연구원 원장

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풍속화에 젓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은 젓가락의 사용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젓가락 사용의 확대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리학의 발달로 가례가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가례에 있어 사용하는 그릇이나 도구, 음식들이 일원화되어 간다는 것으로 가례에 있어 음식을 덜거나 옮기는데 필수적인 젓가락 또한 그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젓가락, 숟가락, 조선시대, 임진왜란, 고려시대의 전통, 성리학, 가례, 풍속화

I. 머리말

젓가락은 한 쌍의 가늘고 짙막한 나무나 청동 등의 재질로 만든 것으로 음식이나 그 밖의 다른 물건을 집는 기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젓가락은 식탁에서 음식물을 입으로 운반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지만 제사나 의식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난로의 재를 정리하는 도구나 작은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도구 또한 젓가락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젓가락 사용은 중국의 영향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장 고촌유적에서 대나무로 제작된 젓가락이 출토되었고 무령왕릉에서도 청동젓가락이 출토된 바 있어 이와 같은 짐작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밥상에서 숟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이것은 이웃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지금 우리들의 젓가락 사용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젓가락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어떠한 배경에서 젓가락 사용이 보다 일반화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자료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 젓가락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조선 전기로 올려 보기는 어렵고 조선시대 18세기를 지나 19세기를 지나면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이 난 이후 장례 풍습이 일변하면서 분묘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부장하지 않게 되어 젓가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되고 있는 젓가락을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조선시대까지의 젓가락 사용의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자 한다. 젓가락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젓가락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출토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젓가락 사용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삼국시대~고려시대 젓가락 자료와 고찰

젓가락이 출토되는 상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청동기시대까지는 출토예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삼국시대에는 분묘와 사지에서 나타난다. 본격적으로 젓가락이 사용되는 시기로 생각되는 고려시대에는 분묘에서 주로 출토되고 이것

은 조선시대 전기까지 이어진다.

1.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젓가락

우리나라에서 젓가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부산 기장고촌유적에서 출토된 죽제 젓가락이 있고 그 이외에는 고분과 사찰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삼국시대의 것으로 편년되며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젓가락이 발견된 바는 아직 없다.

- 기장고촌유적 젓가락 - 저습지에서 출토된 것이며 4세기대의 토기편, 베틀 부속을 비롯한 다수의 목기와 함께 가지런히 놓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 한 쌍의 젓가락은 대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한 짝은 완형으로 상단을 사선으로 깎아 정면하고 하단은 뾰족하게 깎아 마무리하였다. 다른 한 짝은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고 대나무 마디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길이는 각각 28.6cm, 28.2cm 정도이다.¹⁾ (도 1)



도 1. 기장 고촌유적 출토 대나무 젓가락

- 무령왕릉 젓가락 - 무령왕릉에서는 청동 숟가락 3점과 2쌍의 청동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2쌍의 젓가락은 무령왕릉의 관대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각각의 길이는 21.2cm, 19.6cm이며 조금 더 긴 것이 길이 19.5cm의 숟가락과 짝이 되고 조금 짧은 젓가락이 길이 18.2cm의 숟가락과 짝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벌의 젓가락 가운데 한 벌은 단면 원형이며 잡는 부분의 직경은 0.4cm, 아래 부분은 0.2cm이다. 그리고 조금 짧은 젓가락은 왕비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젓가락은 단면 팔각형이며 약 5.5cm 지점에 고리를 부착하여 두 젓가락을 연결할 수 있는 사슬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²⁾ (도 2)

¹⁾ 정의도,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학술원, 2008, pp.282-2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문화재단연구원, 『부산 고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촌유적(I 지구)-본문·부록- 도면·사진-』, 2010, pp.241-257, 401.



도 2. 무령왕릉 출토 청동수저(좌)와 젓가락 부분(우)

• 왕흥사 목탑지 젓가락 - 목탑지 심초석 남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다량의 사리 장엄구가 출토되었는데 젓가락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 청동젓가락은 가운데가 부러진 것으로 단면 8각으로 매끄럽게 마연하였으나 각 면이 일정하지는 않다. 이 젓가락은 21.0cm 정도이며 상단에서 5cm 지점에 고리를 부착하여 두 젓가락을 연결할 수 있는 사슬을 달 수 있게 하였다.²⁾ (도 3)



도 3. 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젓가락

2.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젓가락 고찰

이상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면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젓가락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삼국시대에 젓가락을 식탁에서 사용

²⁾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무령왕릉』, 1973, pp.12-17, pp.39-40. 무령왕릉 발굴 40주년을 맞아 펴낸 국립공주박물관, 2011 『무령왕릉 연구현황 검토』 『무령왕릉을 격물하다』에 무령왕릉에 대한 연구 업적이 망라되어 있다.

³⁾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흥사Ⅲ』 학술연구총서 제52집, 2009, p.64.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삼국시대의 고분은 어림잡아도 수 천기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고 출토유물은 수 만점을 쉽게 넘길 것이지만 그 중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된 고분은 무령왕릉 단 1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상황은 같은 시기 중국 남조에서 조성되던 고분의 부장품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장되던 상황과도 구별된다.⁵⁾ 또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숟가락과 젓가락이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수저를 모방 제작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므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과 젓가락은 당시 일반적인 식도구로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는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손으로 밥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장 고촌에서 출토된 대나무 젓가락을 두고 고분 속에 나무로 만든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부장되었으나 오랜 세월에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산 임당동이나 신창동저습지에서 출토된 목제 식도구 가운데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⁶⁾ 토기로 제작된 숟가락이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대에 쓰여진 『禮記』에 「남과 함께 먹으면 손을 문지르지 않는다. 밥을 뭉치지 말고 방반하지 않으며 물마시듯이 들이 마시지 않는다. 밥을 헤치지 말며 기장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⁷⁾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삼국 시대에도 밥을 손을 이용하였으며 발굴조사된 수많은 삼국시대의 무덤에서 숟

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무령왕릉』, 1973.

5) 중국 남조 묘장의 출토유물에 대하여는 중국 측 발굴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1956년 이래 발간되고 있는 고고학지 『考古』와 『文物』을 참고하여 출토유물을 검토한 것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정의도, 2014, 「무령왕릉 출토 청동수저」, 『한국고대술가락연구』 경인문화사, pp.145-177.

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목기-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집 제41집. 39-66. 이 자료집에는 목기를 무기류, 농공구류, 용기류, 식사구, 생활구, 방직구, 문방구 및 목척류, 운반구, 악기류, 의례용, 건축부재, 기타 및 용도 불명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자료집의 식사구류에는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된 국자, 국자형 목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국립공주박물관, 2010 『새로운 만남 백제의 목기』에도 숟가락으로 지목한 목기가 있으나 술부가 음식을 뜨는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여 오히려 국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고 젓가락은 사례가 없다.

7) 『禮記 曲禮 上』 「共飯不澤手 毋搏飯 毋放飯 毋流歠. 毋揚飯 飯黍毋以箸」, 여기에서 不澤手라고 한 것은 밥을 먹을 때 손을 문지르지 않는다, 또는 땀이 난 손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밥을 손으로 먹었기 때문이며 毋放飯이라고 한 것은 숟가락에 묻은 밥을 다시 그릇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한 것으로 역시 손으로 밥을 먹을 때의 예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민수 역해, 1992, 『禮記』 pp.35~38) 이해원, 2010, 『중국의 음식문화』 학술연구총서 73, 고려대학교 출판부, pp.119~125.

락이나 젓가락이 나오지 않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고고자료로 보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식탁에서 일반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왕흥사에서 출토된 젓가락은 젓가락 가운데 고리를 부착하여 사슬로서 연결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 쌍의 젓가락 가운데 동일한 형태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길이는 20cm~21cm 정도이다. 이 왕흥사 젓가락은 사리 장엄구와 함께 출토된 것인데 감은사 서삼층 석탑이나 화엄사 서삼층 석탑의 장엄구에 포함된 숟가락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리를 사리기에 집어 넣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⁸⁾ 아울러 기장 고촌유적 출토 대나무 젓가락도 그런 점에서 식도구가 아니라 특정한 기물을 집거나 제사에서 사용된 도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통일신라시대의 젓가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토된 예가 없고 숟가락은 호암산성이나 부소산에서 청동숟가락이 발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식탁에 젓가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게다가 20점이 넘는 청동숟가락이 출토된 안압지에서도 젓가락은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신라의 물건이 많이 전해져 남아 있는 일본 정창원 남창에 신라의 문서로 싸여진 채 보관된 사파리시 345매와 조금 형식이 다른 폭이 넓은 술부를 가진 목염형 숟가락, 그리고 패시가 60점 소장되어 있으나, 금제도금의 숟가락과 젓가락(도 4) 한 쌍만 소장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⁹⁾ 그리고 정창원에 보관된 숟가락은 2점을 한 세트로 싸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한 숟가락은 음식을 떠오는 용도로, 다른 한 숟가락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⁸⁾ 왕흥사지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고리가 달린 젓가락은 병차를 굽는 젓가락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으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저 두벌은 모두 관 밖에서 출토된 것으로 숟가락은 연도의 입구에 동발과 같이 두었고 젓가락은 관대 앞에 청동잔과 같이 둔 것이다. 이것을 병차를 굽는 젓가락으로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고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무령왕릉』, 정의도, 2009, 『무령왕릉 출토 청동시지 연구』, 『선사와 고대』 30, 한국고대학회) 또한 왕흥사에서 출토된 사리기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리기의 명문을 보면 사리를 사리기에 사리를 담았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은사탑이나 화엄사 서탑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사리를 담기 위한 도구로 생각되어 왕흥사 젓가락도 사리를 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정의도, 2008,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또한 종묘에서 사용 중인 망료저 또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계 주38) 참조.

⁹⁾ 奈良國立博物館, 『第40會 正倉院展』 昭和 63年, 1988, pp.104-105, 『第54會 正倉院展』 平成 14年, 2002, pp.59-65.



도 4. 일본 정창원 소장 금도금은제수저

3. 고려시대의 젓가락

통일신라시대의 분묘 부장품은 골호나 석관이 유행하면서 일부 요대나 도자 등의 금속기나 토기 등의 부장품은 있었으나 대부분 박장을 유지하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분묘의 통일신라시대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부장품이 늘어나게 된다. 그 배경에는 요나라나 금나라, 원나라 등과 같은 거란족, 여진족이나 몽골족이 수립한 나라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나 교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젓가락은 대부분 분묘에서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는 청동젓가락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고려시대의 침선에서 선원들의 생활도구 중에 청동수저와 함께 나무젓가락이 출수되기도 한다. 다음에는 분묘와 침선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젓가락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 인종 장릉 젓가락 - 수저 한 벌로 출토된 것으로 구리가 소량 포함된 은제이다. 숟가락은 소위 장릉형 숟가락이라는 형식 분류의 기준이 된 것으로 전체 길이는 32.8cm이다. 젓가락은 길이 24.1cm로 손잡이 부분은 죽절형, 단면 원형이며 집는 부분으로 가면서 가늘어진다.¹⁰⁾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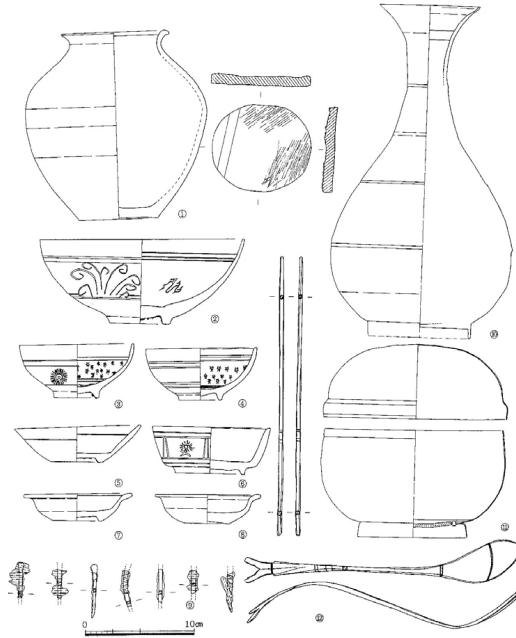


도 5. 인종 장릉 출토 은제 숟가락 및 청동제 젓가락

- 강릉 방내리고려묘 젓가락 - 4기의 고려묘 가운데 2호에서만 북송전(지도원보, 상부통보, 원풍통보 등), 남송전(소흥원보)과 함께 상태가 불량한 청동수저가 출토되었다. 젓가락의 남은 길이는 각각 22cm, 20cm이다.

¹⁰⁾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왕실의 도자기』, 2008, p.18. 이난영,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992, pp.117-120.

- 부여염창리고분V-1호 젓가락 - 청동수저가 호형토기, 청자대접, 청자팔각접시, 청자화형접시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네모서리의 각을 줄인 말각방형의 단면으로 가운데가 양 끝보다 약간 두껍다. 손잡이 부분에는 2조의 음각선대를 배치하였다. 전체 길이 25.8cm, 두께 0.3-0.4cm.¹¹⁾ (도 6)



도 6. 부여염창리고분V-1호 출토 유물

- 논산원북리13호 젓가락 - 청동발과 수저가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의 단면은 사각의 모를 줄인 말각방형이며 중앙에 2조 또는 3조의 홈을 새겨 죽절 장식을 하였다. 전체 길이 225.1cm, 두께 0.4cm.¹²⁾

- 단양현곡리고분14호 젓가락 - 청동합과 수저가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1쌍으로 가운데는 2단으로 2줄의 새겨 죽절문을 만들었다. 위쪽은 단면이 팔각형이고 아래쪽은 원형이다. 전체길이 26.6cm, 두께 0.4cm.¹³⁾

- 청주용암 금천동II-1유적 127호 젓가락 - 토광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청동발, 청동손가락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젓가락은 청동제로 완형이다. 1점은 상단이 단면 팔각형이고 다른 1점은 단면 장방형이다. 하단의 단면은 모두 원형이다. 길이 23.1cm, 22.8cm, 두께 0.3cm.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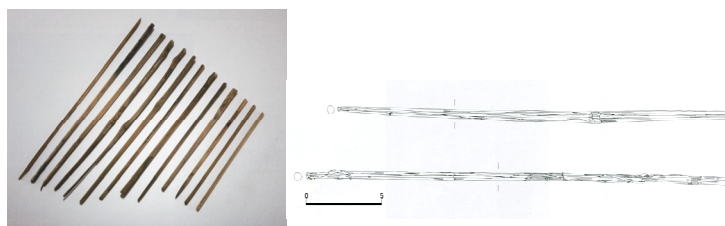
11) 공주대학교 박물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염창리고분군(본문)(도판)』2003, pp.529-533, p.312.

12) 중앙문화재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논산시, 『논산 원북리유적(본문)(도면)』, 2001, pp.247-248, p.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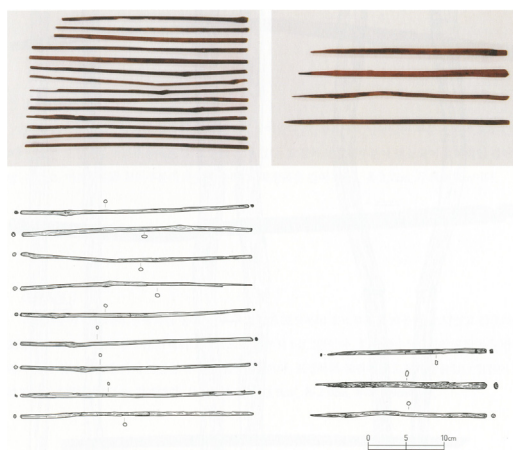
13)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단양현곡리 고려고분군』, 2008, pp.104-108.

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청주 용암유적(II)-본문- 사진-』, 2000, pp.246-250, pp.164-165.

- 태안마도 1호선 젓가락- 13점의 대나무 젓가락 형태의 막대가 출수되었다. 27cm 내외가 6점, 20cm 내외가 3점, 17cm 내외가 4점이다. 이와 함께 출수된 청동 숟가락은 모두 13점이며 1점만이 쌍어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형이다.¹⁵⁾ (도 7)



도 7. 태안마도 1호선 출토 대나무 젓가락



도 8. 태안마도 2호선 출토 대나무 젓가락

- 태안마도 2호선 젓가락 - 8점의 청동숟가락과 함께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젓가락이 완형으로 출수된 것이 18점이고 형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12점이다. 완전한 형태의 것 중 아래와 위가 동일한 일자형 젓가락은 14점이고 길이는 31.1cm 내외가 11점, 27cm 내외가 3점이다. 아래를 뾰족하게 다듬은 것이 3점인데 길이는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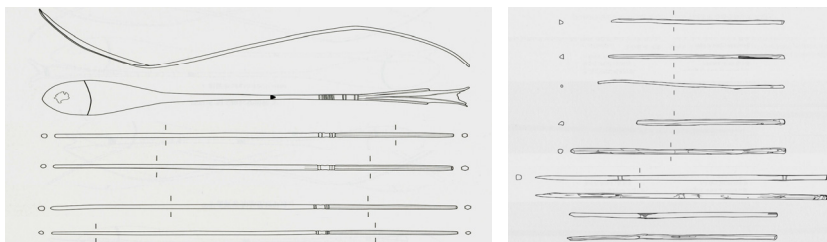
22.6cm, 24.2cm, 21.1cm이다. 또한 나무사지의 껍질을 제거한 후 원형과 타원형 단면의 젓가락도 출수되었다. 모두 부러진 채로 출수되었는데 7점만 전체적인 형태가 확인되었고 길이는 32.3cm, 32.6cm이다.¹⁶⁾ (도 8)

- 태안마도3호선 젓가락 - 마도 3호선에서는 청동숟가락 9점, 청동젓가락 4점과 함께 대나무 젓가락 7점도 함께 출토되었다. 청동젓가락은 남은 상태로 보아 2별로 볼 수 있는데 한 벌은 상부는 단면 육각형, 하부는 단면 원형으로 제작되었고 1/3 지점에 2조의 죽절문이 음각되어 있다. 전체 길이 24.24cm, 두께

¹⁵⁾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조사보고서 태안마도1호선』, 2010, pp.418-423.

¹⁶⁾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조사보고서 태안마도2호선』, 2011, pp.310-333.

0.3-04cm. 다른 한 벌 또한 제작수법은 동일하며 전체 길이 24.6cm, 두께 0.4cm 이다. 대나무 젓가락은 끝이 뾰족한 것과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있다. 끝이 뾰족한 것의 길이는 ①16.4cm, ②20cm, ③26.5cm, ④19.1cm 등인데 ①과 ③은 끝을 비스듬하게 잘랐고 ②와 ④는 끝을 마름모꼴로 다듬었다.¹⁷⁾ (도 9)



도 9. 마도 3호 출토 청동 숟가락 젓가락(좌), 대나무 젓가락(우)

- 광주쌍촌동2호 젓가락 - 청동숟가락, 철제 가위 등과 같이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청동제로 한 점은 완형이지만 다른 한 점은 아래 부분이 훼손되었다. 윗부분의 단면은 팔각형이고 아랫부분의 단면은 원형이다. 1/3 되는 지점에 각각 3조의 홈이 2줄, 2조의 홈을 3줄 새겨 죽절문을 만들었다. 전체 길이 23.7cm, 두께 0.4cm이다.¹⁸⁾

- 청도대전리 고려묘 I-41호 젓가락 - 토광묘에서 청동숟가락과 한 벌로 출토된 것이다. 2열 1조의 음각 침선 3조를 등간격으로 새겨 죽절문을 만들었다. 상부는 단면 방형, 하부는 단면 원형이다. 전체 길이 21cm, 두께 0.4cm이다.¹⁹⁾

- 안동태사묘삼공신 젓가락 - 보물 제451호로 일괄 지정된 고려말 삼태사의 유물들로 쌍어형 청동숟가락 1점과 젓가락이 3점으로 부러져 전하고 있다. 길이는 각각 15.9cm, 14.5cm, 10.5cm이다.²⁰⁾ (도 10)



도 10. 안동태사묘삼공신출토유물

¹⁷⁾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조사보고서 태안마도3호선』, 2012, pp.280-290, pp.300-302.

¹⁸⁾ 전남대학교 박물관·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쌍촌동 주거지』, 1999, pp.208-210.

¹⁹⁾ 성립문화재단연구원,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묘군II』, 2008, pp.129-132.

²⁰⁾ 진흥섭 편저, 『국보 5.공예』, 1985, p.162, p.228.

- 밀양 고법리 박익선생 벽화묘 젓가락 - 장릉형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상부는 단면 방형이지만 하부는 단면 원형이며 중간의 손잡이 부분 가까이 2조의 음각선을 상하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홈을 돌아가면서 새겨 죽절문을 표현하였다. 전체길이 26.2cm, 두께 0.5cm이다.²¹⁾ (도 11)



도 11. 밀양 고법리 박익선생 묘 출토 수저

4. 고려시대의 젓가락 고찰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각 지역에 조성된 분묘에서 젓가락이 출토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을 정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젓가락이 대부분의 식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젓가락은 모두 청동제이며 청동제 젓가락은 거의 대부분 청동숟가락과 같이 출토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적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단양 현곡리에서는 고려분묘 33기가 발굴조사되어 이 분묘의 주인공들은 출토유물의 수준으로 보아 피장자들은 남한강 상류지역에 토착하였던 지방세력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²²⁾ 이 분묘군에서는 25기의 인골과 함께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청자압출양각국초화문완, 청자해무리굽완, 청자유병, 청자백화화문잔받침, 청자호, 청자광구병, 청자간, 청자상감중권문발, 청자상감국화문침외모양주자, 백자음각운문완, 백자잔, 도기광구병, 도기유병, 도기호 등의 도자기류, 청동곳, 철제가위, 청동경, 청동합, 청동숟가락과 젓가락, 청동박쥐문단추, 금동허리띠장식물, 철제도자, 청동도자, 철제고리, 철사, 은제고리, 철

21)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밀양고법리벽화묘』 고적조사보고 제35책, 48-50. 박익선생의 생몰 연대는 황희가 쓴 묘표에 의하면 정종 즉위년(1398)이지만 분묘에서 출토된 영락통보(1403~1424)를 참고하면 이 묘는 박익선생의 사망 당시 조성한 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숟가락과 수저는 박익선생이 생존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젓가락으로 편년하여 소개한 것이다.(정의도, 2010, 『송은 박익선생묘 출토유물의 고고학적 해석』 『선사와 고대』 제 33호, 참조)

22)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고려인의 영원한 삶 단양 현곡리』 발굴성과전, 2009, pp.20-25.

제고리 등 고려고분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유물들이 망라되어 수습되었다.²³⁾

그런데 이 33기의 고려분묘 중 청동순가락이 출토된 것은 14호, 15호, 17호, 18호, 21호, 26호, 고려3호, 고려4호, 고려5호 등에서 각 1점씩 9점이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모두 청동젓가락인데 15호, 26호, 고려3호, 고려5호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비율을 따져보면 순가락의 출토비는 9/33으로 33%이고 젓가락은 4/33이니 12%이다. 그런데 젓가락은 순가락과 함께 출토되고 있으니 수저가 출토되는 비율 또한 12%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순가락만 출토되는 분묘보다는 순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출토되는 분묘의 부장품이 좀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까지도 젓가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어렵고 일부 집안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젓가락이 반드시 필요한 음식은 국수이고 이외의 음식은 순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圖經』에서 연회를 기록한 글에 「나라 안에 밀이 적다. 모든 밀은 장사치들이 경동도(山東地域-필자 주)를 통하여 수입하여 면 가격이 대단히 비싸므로 큰 잔치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²⁴⁾ 고려시대에 국수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었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무덤에 들고 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아직 젓가락이 식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도선에서 출토된 나무젓가락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마도에서는 3척의 침선이 발굴되어 보고서가 나와 있다. 이 중 2호선과 3호선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추정되는 것이 출수되었다고 하였고 이것을 요약하여 앞에 정리해 두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음식물을 집는 식도구로 볼 수 있을까? 먼저 그 형태나 길이가 일부 젓가락과 유사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27cm 내외가 6점, 20cm 내외가 3점, 17cm 내외가 4점의 나무 막대 가운데 길이로만 보면 20cm 내외의 것을 젓가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음식물을 집는 부분을 등글게 가공한 것은 그 중 4점 뿐이라고 한다. 마도 2호선의 대나무 막대는 완형으로 출수된 것이 18점인데 한 쪽 끝을 뾰족하게 만든 것은 3점으로 길이가 22.6cm, 24.2cm, 21.1cm이다. 다른 나무 막대 10점 중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것은 7점이고 그 중 하단을 뾰족하게 다듬은 것이 1점인데 길이는 23.4cm, 두께는 0.5cm이다.

23) 전계 주7) 265 표1. 도자기의 편년과 공반 유물 참조.

24) 『高麗圖經』 卷二十二 雜俗一 鄉飲 「國中少麥皆買 人販自京東道來 故麵價頗貴 非盛禮不用」

또한 마도 3호선의 대나무 막대는 총 7점 중 하단을 뾰족하게 다듬은 온전한 형태의 것이 3점인데 길이가 16.4cm, 20cm, 26.5cm, 19.1cm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나머지는 부러진 것이거나 끝이 뭉툰한 그대로를 사용한 것이다.²⁵⁾

이상과 같이 일부는 음식물을 집는 젓가락으로 보아도 무방한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막대도 있어 고려시대에는 선박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점은 청동젓가락이 청동숟가락과 같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나무젓가락이 출수되었다면 나무 숟가락도 한 점쯤은 출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젓가락은 국수를 먹는데 필수적인 도구인데 고려시대에 그 귀한 국수를 조운선의 선군들이 국수를 먹기 위해 젓가락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마도 1호나 2호, 3호선에서 많은 청동숟가락과 젓가락이 출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동수저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을 나누어 생각한다면 현재 고려 고분에서 숟가락만 출토되는 것은 나무젓가락을 부장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복잡한 상황이 예상되기도 한다.²⁶⁾

Ⅲ. 조선시대 젓가락 자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성리학이 새로운 지배질서로 채택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자를 위한 부장품의 구성 또한 대체로

25)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新發見 高麗青磁 - 韓國水中考古學成果展 -』日韓國交正常化50周年記念 國際交流特別展, 2015, pp.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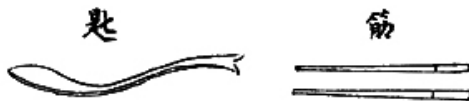
26) 또한 남송때가 되면 거의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와 남송과의 교류를 생각하면 젓가락의 사용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고려가요 동동에 분지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노래하고 있어(십이월 분디남가로 갓곤 아오 나잘 반엿 저다호라 니피 알패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라잡노이다 /십이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아, (임계) 드릴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뭍니다. 아오 동동다리) 고려시대의 젓가락이 많은 계층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를 검토하여 보거나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고려는 중국의 북방민족 국가 즉 요나 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원으로부터는 거의 100년에 이르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숟가락을 일찍 포기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려에서 젓가락 사용이 일반화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려가요에 나오는 분지나무(북쪽에서 산초나무를 부르는 이름) 젓가락으로 고려시대에 젓가락 사용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헤아리기는 고려가요의 성격이나 「동동」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필자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다.

임진왜란이 끝나는 조선시대 전기까지 고려시대의 장법이 이어지는 듯 하지만 지역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이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채택하였다고 하여도 고려시대 이후 전해져 온 장례절차는 지역에 따라 완급의 차이는 있다고 하여도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 시대의 장례 풍습과는 전혀 다르게 주자가례에 따라 장례를 치른 분묘도 확인되고 있는데 주자가례에 따라 장례를 치른 분묘에서는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부장유물인 청동손가락이나 족가락, 청동합, 도자기, 반지나 청동곳 등의 장신구 등은 출토되지 않는다. 대신 銘旌이나 소렴과 대렴에 들어가는 의복이나 명기 등이 부장되어 확인된다.²⁷⁾

그러므로 족가락은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대체로 분묘에서 출토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조선시대 전기의 장례풍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분묘의 부장품으로 손가락이나 족가락이 부장품으로 전하는 것은 거의 없고 어쩌다가 백자나 상평통보 한 점씩이 분묘의 출토되는 것이 전부인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새로운 외래 식품이 등장하여 식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도 분묘나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족가락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고고자료로서 조선시대 후기의 변화를 추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분묘에서 손가락과 같이 출토되는 족가락은 적지 않은 양이므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만 선별하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조선 후기의 족가락 자료는 일부 실물과 함께 회화자료도 함께 소개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 족가락의 사용이 조금 더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시대 전기 족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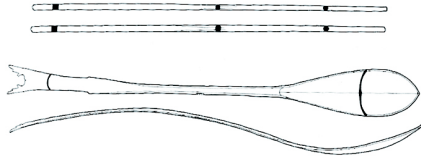
• 『世宗實錄』 족가락 - 『세종실록』 오례 흥례 서례 明器 四에 족가락을 저 「筋」로 쓰고 나무로 만든다고 하였다. 대개 족가락은 대나무 죽 변을 써서 「箒」로 쓰거나 「篋」로 쓰는데 여기서서는 같은 대나무 죽 변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筋」를 사용하였다.²⁸⁾ (도 12)



도 12. 『世宗實錄』 「凶禮 明器圖說」

27) 울산박물관, 『학성이씨 일가묘 출토유물』,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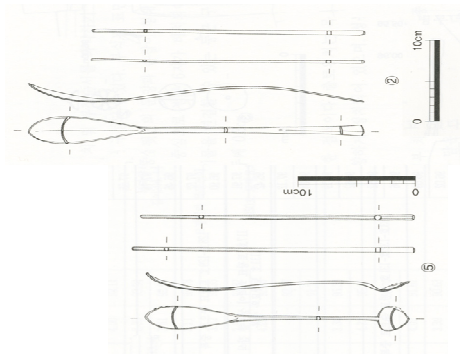
28) 『世宗實錄』 五禮 / 凶禮字例 / 明器 / 明器 四 筋 以木爲之 참고로 『世宗實錄』의 본래 명칭은 『世宗章憲大王實錄』이며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의 재위 기간(1418.8.~1450.2.)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1452년(문종 2) 3월 22일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454년(단종 2) 3월에 완성



도 13. 은녕군묘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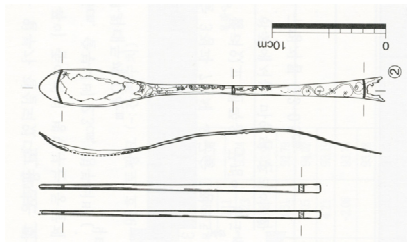
방형이고 하단은 원형이다. 전체 길이는 25.4cm, 두께 0.4cm이다.²⁹⁾ (도 13)

- 은녕군묘 출토 젓가락 - 은녕군은 세종의 서형제가 되는 인물로 이 무덤의 축조 시기는 단종 2년(1454)이다. 청동제로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젓가락의 상단은 단면



도 14. 은평 진관동 28호(상), 120호(하) 출토 다른 한 점은 상단의 단면이 육각형이고 아래로 갈수록 두께를 줄였다. 크기는 각각 24 x 0.6cm, 23.2 x 0.6cm이다. 그리고 128호 젓가락은 기본형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된 것인데 길이는 숟가락(28.8cm) 보다 훨씬 짧고 두께도 다르다. 상단의 단면은 방형으로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원형으로 만들었다. 크기는 23.6 x 0.4cm, 23.6 x 0.3cm이다.³⁰⁾ (도 14)

- 은평 진관동 분묘군IV 120호·128호 출토 젓가락 - 120호 젓가락은 약시형 청동숟가락과 출토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젓가락의 길이가 숟가락 보다 길다. 젓가락은 각각 길이와 제작수법이 다르다. 한 점은 상단이 단면 방형으로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서 원형으로 마감하였지만



도 15. 은평 진관동분묘군VI 73호 출토

- 은평 진관동분묘군VI 73호 출토 젓가락 - 쌍어형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한쪽이 약간 더 가늘다.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인데 아래로 갈수록 두께를 줄여서 원형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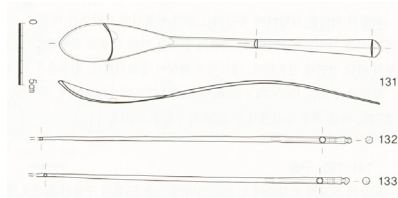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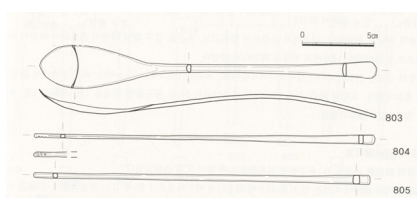
되었다. 한편 『世宗實錄』에는 젓가락과 함께 숟가락을 자루의 끝이 둘로 갈라진 「쌍어형」으로 그렸으나 성종 5년(1474)에 완성된 『國朝五禮儀』와 정조 13년(1789) 예조에서 관장한 예무의 고실을 망라한 『春官通考』에는 숟가락의 그림이 실려 있지 않다.

²⁹⁾ 이난영,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992, pp.137-139.

³⁰⁾ 중앙문화재연구원·SH공사·두산건설(주)·금호건설(주), 『은평뉴타운 제2지구C공구 내 은평진관동분묘군IV』 발굴조사보고 제156책, 2009, pp.63-65, pp.68-71, p.281, p.283.

전체 크기는 각각 24.8 x 0.8cm, 24.8 x 0.6cm이다.³¹⁾ (도 15)

- 서울 진관동유적Ⅱ 3지점-135호 출토 젓가락 - 기본형 청동손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한 쌍의 젓가락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며 아래로 갈수록 두께를 줄여 단면을 육각형에 가깝게 처리하였다. 특이한 점은 젓가락의 하단에 톱니를 만들었는데 음식물을 용이하게 집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길이 23.6cm, 두께 0.6cm이다. 같은 구간에서 조사된 175호에서도 기본형 청동손가락과 함께 135호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젓가락이 출토되었으나 하단에 톱니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 젓가락의 길이는 24.2cm, 두께 0.6cm이다.³²⁾ (도 16)



도 16. 서울 진관동유적Ⅱ 3지점-135호 출토 젓가락 도 17. 서울 진관동유적Ⅲ 3지점-1호 출토 젓가락

- 서울 진관동유적Ⅲ 3지점-1호 출토 젓가락 - 3점의 구슬, 기본형 청동손가락과 함께 출토된 젓가락이다. 이 젓가락은 상단을 연봉형으로 처리한 다음 흠을 돌아가면서 낸 보기 드문 형태로 정교하게 제작한 것이다. 그 아래로 젓가락을 잡는 부분은 단면을 육각형으로 처리하였고 이어서 두께를 줄여가며 단면 원형으로 제작하였다. 전체 길이 24.7cm, 두께 0.5cm이다.³³⁾ 이와 동일한 형태의 젓가락은 같은 유적 D공구 2지점 198호에서도 출토되었는데 기본형 청동손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형태나 제작수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길이가 19.8cm, 두께는 0.4cm로 조금 더 작다.³⁴⁾ (도 17)

³¹⁾ 중앙문화재연구원·SH공사·두산건설(주)·금호건설(주), 『은평뉴타운 제2지구C공구 체육시설 부지내 은평 진관동분묘군Ⅵ』 발굴조사보고 제167책, 2010, p.59.

³²⁾ 한강문화재연구원·SH공사·동부건설(주)·포스코건설(주), 『서울 진관동유적Ⅱ』 유적조사보고 제9책, 2010, pp.289-290, p.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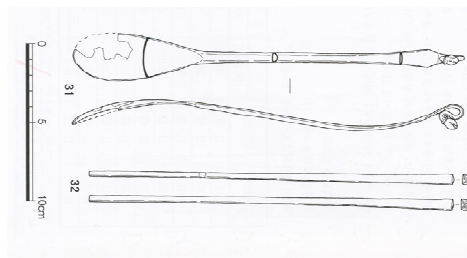
³³⁾ 한강문화재연구원·SH공사·금호건설(주)·삼성물산(주)·대우건설(주), 『서울 진관동유적Ⅲ』 유적조사보고 제11책, 2010, pp.136-139, 423.

³⁴⁾ 한강문화재연구원·SH공사·현대건설(주), 『서울 진관동유적Ⅳ(2권)』 유적조사보고 제16책, 2010, pp.220-223,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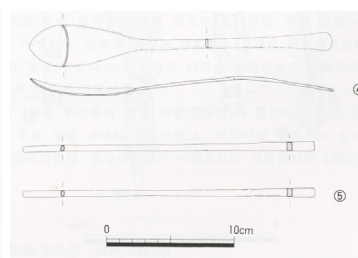
- 인천 원당동 2-29호 출토 젓가락 - 장릉형숟가락, 청동합, 중국전(승녕통보, 홍무통보)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다. 젓가락의 7cm 지점에 2열의 음각선을 상하로 새겼다. 전체 길이 27.3cm, 두께 0.4cm이다.³⁵⁾

- 남양주 평내유적 1지구2호분 출토 젓가락 - 다량의 구슬, 벼루, 연봉형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다. 전체 길이 23.2cm, 두께 0.8 x 0.6cm이다.³⁶⁾

서천 옥남리 43호 토광묘 출토 젓가락-청동합, 청동숟가락, 구슬과 함께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완형에 가까운 젓가락 한 쌍이다. 상단의 단면은 말각장방형이고 하단으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원형으로 마감하였지만 한쌍이 같은 크기는 아니다. 전체 길이 24.3cm, 0.9 x 0.5cm이다.³⁷⁾ (도 18)



도 18. 남양주 평내유적 1지구2호분 출토



도 19. 청원 오창유적(I) 7호 출토

- 청원 오창유적(I) 7호 토광묘 출토 젓가락 - 백자발, 백자완, 기본형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한쌍으로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아래로 가면서 계를 줄여 단면 원형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길이 22.8cm, 두께 0.6cm이다.³⁸⁾ (도 19)

- 전주 유상리 I 지구 51호 토광묘 출토 젓가락- 연봉형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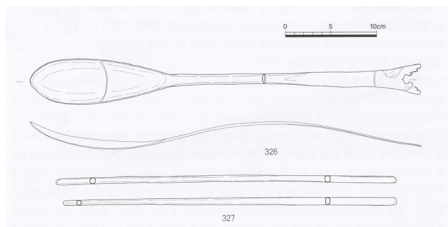
³⁵⁾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 『인천 원당동유적(I)』, 2007, pp.134-137, p.284.

³⁶⁾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남양주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I)-조선시대 분묘군-』 학술조사보고 제 21책, 2001, pp.32-42, pp.131-136.

³⁷⁾ 충청문화재연구원, 『서천 옥남리유적(날머리 I·II 유적·갯재골유적·원개들유적·우아실유적(본문)(사진)』, 2008, pp.182-186, 86.

³⁸⁾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청원 오창유적(I)-본문-사진-』, 1999, pp.451-455, 29.

원형이다. 전체 길이 25.7cm, 두께 0.6cm이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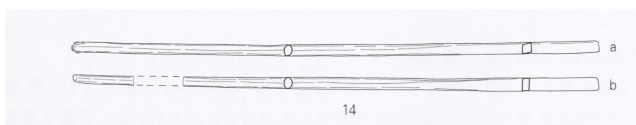


도 20. 청도 대전리 27호 출토

- 청도 대전리 27호 출토 젓가락 - 백자발, 백자완, 청동숟가락, 청동합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한쌍이 출토되었으나 두께나 크기가 맞지 않다.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단면 원형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길이와

두께는 각각 24.8cm x 0.4cm, 24.2cm x 0.6cm이다.⁴⁰⁾ (도 20)

- 경산 신대·부적조선묘 I-20호 출토 젓가락 - 청동숟가락, 분청사기발 등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한 쌍으로 그 중 1점은 일부 훼손되었다.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단면 원형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길이 22.6cm, 두께는 각각 0.6cm, 0.4cm이다.⁴¹⁾ (도 21)



도 21. 경산 신대·부적조선묘 I-20호

- 달성 본리리 17호토광묘 출토 젓가락 - 청동합, 분청사기완, 쌍어형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각각의 굵기는 다르다.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단면 원형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길이 22.3cm, 두께는 각각 0.6cm, 0.5cm이다.⁴²⁾

- 김해 구산동 963호 출토 젓가락 - 연봉형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

³⁹⁾ 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시, 『진주 유상리유적』, 2007, pp.72-74, pp.258-259.

⁴⁰⁾ 성립문화재연구원,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묘군 I』 학술조사보고 제19책, 2008, pp.105-108, p.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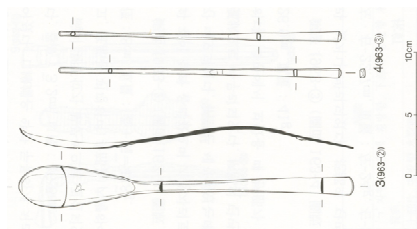
⁴¹⁾ 성립문화재연구원, 『경산 신대·부적 조선묘군』 학술조사보고 제25책, 2008, pp.74-76, pp.375-376.

⁴²⁾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 옥포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달성본리리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본문-사진-』, 2007, pp.319-322, pp.249-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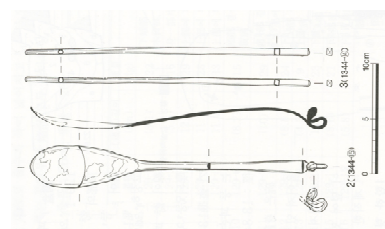
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지만 그 단면의 크기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전체 길이 23.4cm, 두께 0.6 x 0.2cm이다. (도 22)

- 김해 구산동 999호 출토 젓가락 - 약시형 청동숟가락, 청동합, 백자와와 함께 출토되었다.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지만 그 단면의 크기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전체 길이 23.7cm, 두께 0.4cm이다.⁴³⁾

- 김해 구산동 963호 출토 젓가락 - 연봉형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지만 그 단면의 크기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전체 길이 23.4cm, 두께 0.6 x 0.2cm이다. (도 23)



도 22. 김해 구산동 963호 출토



도 23. 김해 구산동 1344호 출토

- 김해 구산동 999호 출토 젓가락 - 약시형 청동숟가락, 청동합, 백자와와 함께 출토되었다.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지만 그 단면의 크기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전체 길이 23.7cm, 두께 0.4cm이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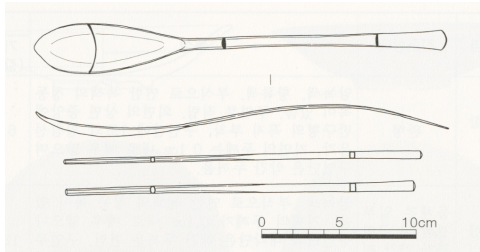
- 김해 구산동 1344호 출토 젓가락 - 청동숟가락, 철제가위 등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젓가락을 잡는 상단의 단면은 방형이고 하단은 원형이다. 전체 길이 25.8cm, 두께 0.6cm이다.

43)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구산동유적-고려·조선묘군(4)-』, 2009, pp.194-197, pp.236-238, pp.499-500, pp.524-555.

44)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구산동유적-고려·조선묘군(4)-』, 2009, pp.194-197, pp.236-238, pp.499-500, pp.524-555.

- 김해 구산동 1452호 출토 젓가락 - 청동합,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을 잡는 부분은 단면이 방형이고 음식을 집는 하단의 단면은 원형이다. 상단 끝에서 6cm 지점에 2열의 음각선을 상하로 새기고 음각선 사이에는 홈을 내어 죽절문을 표현하였다. 전체 길이 24.6cm, 두께 0.4cm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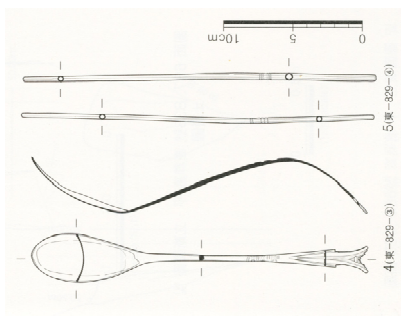
- 창원기음정유적 69호 출토 젓가락 - 소도자, 백자접시, 청동합, 쌍어형 청동숟가락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상단은 단면 장방형이고 아래로 갈수록 두께를 줄여 원



도 24. 창원기음정유적 69호 출토

형에 가깝게 만들었다. 전체 길이 23.1cm, 두께 0.4cm이다. 51호에서도 청동합, 쌍어형 청동숟가락과 함께 젓가락이 한 쌍 출토되었다. 전체 길이가 27.8cm로 긴 편이고 아래로 가면서 단면이 육각형에 가깝게 깎았다. 그리고 70호에서 출토된 젓가락은 1쌍이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길이나 두께가 확연히 달라 당시 젓가락의 사용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체 크기 24cm x 0.4cm, 23.3 x 0.4cm이다.⁴⁶⁾ (도 24)

- 창녕 영산 서리유적 829호 목관묘 출토 젓가락 - 청동합, 쌍어형 청동숟가락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한 쌍의 젓가락은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고 제작 수법도 동일하지만 굽기가 다르고 또 한 점은 휘인 채로 출토되었다. 젓가락의 상단 단면은 팔각형으로 잡는 부분을 깎아서 만들었고 아래로 갈수록 원형에 가까워진다. 또한 6cm 지점에 2조의 음각선을 상하로 새기고 그 사이에는 약하게 홈을 내어 죽절문을 만들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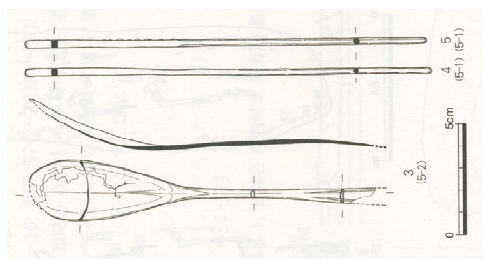


도 25. 창녕 영산 서리유적 829호 출토

45)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구산동유적-고려·조선묘군(5)-』, 2009, pp.228-231, pp.326-328, pp.521-524, pp.585-586.

46)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창원시, 『창원 기음정 복합유적(하) 고려시대~조선시대』 발굴조사보고서 제29책, 2009, pp.130-137, pp.163-168, pp.239-253, pp.254-270.

하였다. 전체 길이 25.5cm, 두께 각각 0.45cm, 0.3cm이다.⁴⁷⁾ (도 25)



도 26. 진주 무촌2구5호묘 출토

- 진주 무촌2구5호묘 출토 젓가락 - 청동합, 청동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거의 완형이지만 한쪽이 약간 짧다.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단면 원형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크기는 각각 18.2cm x

0.3cm, 18.4 x 0.4cm이다.⁴⁸⁾ (도 26)

- 진주 무촌3구85호묘 출토 젓가락 - 기본형 청동숟가락, 청동합과 함께 출토되었다. 남아 있는 상태도 좋지만 보 드물게 거의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된 것이다. 젓가락 상단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아래로 가면서 두께를 줄여 단면 원형으로 마감하였다. 전체 길이 22.5cm, 두께 0.4cm이다.⁴⁹⁾

2. 조선시대 후기 젓가락

- 양산통도사박물관 소장 天啓銘 젓가락 - 통도사 박물관에는 천계3년 명이 새겨진 숟가락과 젓가락이 수장되어 있다. 수장 번호 142 청동숟가락은 전체 길이가 47.5cm에 달하는 것으로 이면에는 『天啓三年通度寺施主儀寬』이라고 새겼고 아울러 수장 번호 145번 젓가락은 청동제로 전체 길이는 43.5cm에 이르고 『化儀寬天啓三年通度寺癸亥』라고 짐작되어 있다. 천계 3년은 광해군 15년으로 계해년에 해당된다. 이 젓가락과 숟가락은 임진왜란이 끝이 난 다음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무덤의 부장 풍습이 변하게 되는 단계에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하였던 쌍어형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마도 제의용으로 크게 제작한 것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⁵⁰⁾ (도 27)

47) 삼강문화재연구원, 『창녕 영산 서리 조선묘군-창녕 영산 서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본문, 도면, 사진』, 2012, pp.219-220, p.191.

48)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무촌-고려·조선묘군(1)-』, 2004, pp.134-135, p.252.

49)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무촌Ⅱ-고려·조선묘군(2)-』, 2004, pp.130-131, pp.289-290.

50) 통도사성보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명품도록』, 1994, pp.110-111, p.224.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유물 명품』, 2014, pp.160-161, p.316. 아울러 필자가 통도사 성보박물관측의 협조를 받아 청동숟가락과 청동젓가락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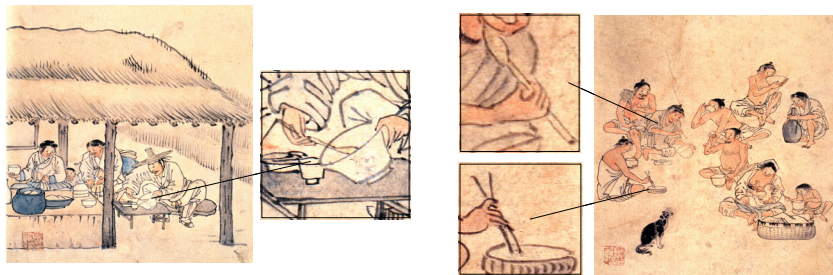
도 27. 양산통도사박물관소장 「天啓」銘 수저

• 망료저 - 망료기는 종묘대제의 마지막 절차인 망료례(望燎禮)에서 폐(幣)를 태우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중 망료저는 폐를 태울 때 집어 올려서 잘 타도록 하는 도구이다. 길이 54.5cm이다.⁵¹⁾ (도 28)



도 28. 망료저

• 단원 김홍도 풍속화 「주막」과 「점심」 - 「주막」에는 국밥을 먹고 있는 사람의 손에 숟가락이 들려 있고 「점심」에는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고 있고 두 사람은 젓가락을 들고 있어 18세기 경 조선 사회의 젓가락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⁵²⁾ (도 29)



도 29. 김홍도 풍속화 「주막」(좌)과 부분도, 「점심」(우)과 부분도

51) 윤방언, 『조선왕조 종묘와 제례』, 문화재청, 2002. 국립고궁박물관, 『종묘』, 2014, p.168, pp.176-177.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젓가락은 부산 기장 중리의 야산 정상부에서 분청사기 발과 함께 암반 위에서 젓가락 1벌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의 길이는 25cm 가량이다.(경남 문화재연구원, 2006 「기장 정관산암단지 진입도로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06-24.10)

5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단원풍속도첩』 중 「주막」, 「점심」

• 궁재 김득신 풍속화 「천렵도」 - 18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강에서 천렵을 하고 난 다음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는 준비해 온 음식이나 천렵한 생선을 먹는 도구로 모두 젓가락을 들고 있다. 이 젓가락은 아마도 나무나 강변에 야생한 갈대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⁵³⁾ (도 30) 한편, 가산 김준근 풍속도- 「농부덤심먹고」, 「막 | 돌갈고」, 「판수경너고」 등에 밥을 먹는 장면이나 밥을 떠 놓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만 젓가락은 그려져 있지 않다.⁵⁴⁾



도 30. 궁재 김득신 풍속화 「천렵도」전체(좌)와 부분(우)

IV. 조선시대 젓가락 사용의 고고학적 검토

1. 고고자료고서의 젓가락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조선시대 전기의 분묘 부장은 고려시대의 부장풍습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변화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경기지역 일부에 한정되고 청동합이나 분청사기나 백자접시, 완, 철제가위, 청동숟가락과 젓가락 등을 부장품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분묘유적이 조사 보고된 예는 상당히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젓가락의 출토 상황을 고찰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많은 조선묘가 조사된 경남의 김해 구산동유적과 주변의 가음정동유적, 운암리유적, 초곡리유적, 덕곡리유적, 용지리유적, 황곡리유적 등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구산동유적에서 각 구간별 젓가락 출토상황은 구산동 I 유적에서 젓가락 8쌍 출토, 숟가락 대비(91점) 9%, 평균 길이 25.6cm, 구산동 II 유적에서 젓가락

⁵³⁾ 간송미술관 소장 김득신 『풍속화첩』 중 「천렵도」

⁵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가산김준근 조선풍속도』, 2008.

7쌍 출토, 손가락 대비(102점) 7%, 평균 길이 25.3cm, 구산동Ⅲ유적에서 젓가락 6쌍 출토, 손가락 대비(106점) 6%, 평균길이 23.5cm, 구산동Ⅳ유적에서 젓가락 16쌍 출토, 손가락 대비(91점) 18%, 평균 길이 24.6cm, 구산동Ⅴ유적에서 젓가락 10쌍 출토, 손가락 대비(86점) 12%, 평균 길이 24.2cm, 구산동Ⅵ유적에서 젓가락 4쌍 출토, 손가락 대비(100점) 4%, 평균 길이 25.3cm인데 구산동Ⅶ유적과 구산동Ⅷ유적에서는 젓가락이 출토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구산동유적에서는 모두 51쌍의 젓가락이 출토되었는데 손가락은 716점이 출토되어 7%의 비율을 보이고 평균 길이는 24.8cm이다.

그리고 죽곡리유적에서 젓가락은 3쌍 출토, 손가락 대비(45점) 7%, 평균 길이 24.7cm, 가음정동유적에서 젓가락은 12쌍 출토, 손가락 대비(28점) 43%, 평균 길이 23.9cm, 귀산동유적에서 젓가락은 2쌍 출토, 손가락 대비(35점) 6%, 평균 길이 24.4cm, 덕곡리유적에서 젓가락은 8쌍 출토, 손가락 대비(60점) 13%, 평균 길이 24.3cm, 용지리유적에서 젓가락 11쌍 출토, 손가락 대비(90점) 12%, 평균 길이 23.6cm, 운암리유적에서 젓가락 14쌍 출토, 손가락 대비(119점) 12%, 평균 길이 24.8cm, 초곡리유적에서 젓가락 3쌍 출토, 손가락 대비(21점) 14%, 평균 길이 24.4cm, 무촌유적에서 젓가락은 6쌍 출토, 손가락 대비(108점) 6%, 황곡리유적에서 젓가락 1쌍이 출토, 손가락 대비(39점) 3%, 길이는 23.6cm이다.

표 1. 청동젓가락 출토 유구일람

유적명	유구명	길이 (cm)	비율 (젓가락쌍 / 손가락)	유적명	유구명	길이 (cm)	비율 (젓가락쌍 / 손가락)	
구산동 I	29호	26.3	9% (8/91)	가음정	41호	23.1	43% (12/28)	
	62호	24.0			48호	9.5(잔)		
	88호	28.3			51호	27.8		
	102호	24.9			69호	23.2		
	170호	잔존			70호	24.0		
	190호	25(잔)			72호	23.2		
	207호	25.6			73호	21.7		
	232호	24.3			75호	23.4		
구산동 II	278호	24.4	7% (7/102)		76호	23.5		13% (8/60)
	288호	23.0			78호	23.6		
	313호	23.5			82호	23.8		
	367호	26.8			83호	25.6		
	411호	29.2		A-15호	불량			
	412호	25.1		A-17호	21.5			
구산동 III	482호	24.9	6% (6/106)	A-19호	23.2			
	511호	24.1		A-31호	26.4			
	557호	23.0		A-38호	23.0			
	615호	25.6		A-44호	24.2			
	630호	24(잔)		B-27호	27.3			
	682호	21.4		C-8호	불량			

유적명	유구명	길 이 (cm)	비 율 (젓가락쌍 / 숟가락)	유적명	유구명	길 이 (cm)	비 율 (젓가락쌍 / 숟가락)		
구산동 IV	792호	2.7(잔)	18% (16/91)	용지리	12호	25.4	12% (11/90)		
	894호	23.2			20호	23.6			
	896호	25.8			33호	20.6(잔)			
	926호	26.5			38호	23.6			
	935호	25.0			39호	21.1			
	963호	22.7			56호	24.1			
	972호	25.1			89호	21.4			
	999호	23.7			105호	25.0			
	1008호	21.6			112호	23.5			
	1039호	21.9(잔)			163호	25.4			
	1054호	15.1(잔)			165호	23.3			
	1079호	26.0			무촌	2구-5호		27.4	6% (6/108)
	1090호	24.2				3구-3호		23.0	
	1093호	27.3		3구-15호		24.0			
	1095호	24.2		3구-41호		23.0			
	1099호	26.0		3구-85호		22.4			
	1102호	22.7		3구-98호	24.8				
구산동 V	1326호	26.5	12% (10/86)	황곡리	A-34호	23.6	3%(1/39)		
	1328호	21.6		운암리	I-5호	24.5	12% (14/119)		
	1341호	22.5			II-18호	25.1			
	1344호	25.2			II-27호	24.1			
	1450호	23.0			II-33호	24.8			
	1452호	24.7			II-36호	25.2			
	1460호	24.6			II-39호	22.8			
	1466호	23.2(잔)			II-40호	22.9			
	1481호	26.7			II-42호	25.1			
	1489호	19.9(잔)			II-52호	25.1			
1559호	24.2	II-60호	25.5						
구산동 VI	1696호	27.0	4% (4/100)	II-62호	23.0				
	1742호	24.8		II-73호	24.6				
	1787호	25.0		II-74호	27.6				
죽곡리	47호	25.9	7% (3/45)	초곡리	II-91호	26.8	14% (3/21)		
	137호	23.5			1호	22.3			
	173호	20(잔)			6호	24.5			
귀산동	53호	24.1	6% (2/35)		31호	26.4			
	86호	24.7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젓가락의 출토비는 가음정유적이 4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초곡리유적(14%)과 덕곡리유적(13%)이다. 구산동유적 전체의 젓가락 출토비는 7%로 낮은 편이지만 구산동IV와 구산동V는 각각 18%와 12%로 높은 반면 구산동VII과 구산동VIII는 젓가락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이 조사구역을 나눈 단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유적의 조성 시기나 피장자 집단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의령 운암리유적에서 II-91호 이후 II-174호까지 숟가락이 46점이 출토되는 상황에서 젓가락 1점도 출토되지 않은 것은 시기적인 차이거나 또는 장례풍습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⁵⁵⁾

어쨌건 젓가락의 숟가락 대비 출토비율은 10% 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것은 수저가 한 쌍으로 출토되는 비율인 것이다. 즉 앞서 정리한 유적 가운데 조선시대 전기로 보이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두고 산출한 것이므로 조선시대 전기의 유물이 출토되는 전체 유구를 기준으로 출토비율을 따져 보면 10%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식탁에서 수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수저가 동반되어 출토되는 유구는 예를 들면 구산동 I-29호에서 동계유대완, 동완, 일반형, 젓가락, 동인, 동계 집게, 동진, 구옥, 조옥, 고옥, 권옥 등이 출토되어 숟가락만 출토되거나 분청자나 백자 등 자기가 출토되는 유구보다도 부장품이 풍부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젓가락의 사용은 그야말로 한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높은 수저 출토 비율을 보이고 있는 창원 가음정동유적은 상당한 경제적인 수준에 올라 있던 집단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젓가락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숟가락보다 짧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식탁에서 숟가락보다 길거나 거의 같은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⁵⁶⁾ 또한 젓가락이 한 쌍으로 출토된다고 하여도 똑같이 제작되어 한 쌍을 이루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주조로 만들지 않고 단조로 제작하여 그 형태가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니 길이가 대부분 같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식탁에서 젓가락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반증이라고 판단된다.⁵⁷⁾

2. 젓가락 사용의 확산

이와 같은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젓가락 사용은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된다. 17세기를 지나면 장례 풍습이 일변하여 조선시대 전기와 같은 부장품이 사라지고 그저 백자 사발 한 점이나 상평통보 몇 개로 대체되고 말기

⁵⁵⁾ 정의도, 『경남지역 조선전기 숟가락연구』 『문물』 창간호, 2011, pp.175-179.

⁵⁶⁾ 아주 드물게 숟가락보다 길게 제작된 젓가락도 있다.(구산동V-1466호)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경향이긴 보다 아주 특별한 예이거나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장례 당시에 부장될 젓가락을 구하다보니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⁵⁷⁾ 또한 젓가락이 고려시대의 분묘에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조성된 분묘에서 계속하여 출토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에 걸쳐 젓가락의 출토 빈도수가 높지 않은 것은 적어도 원 간섭기 이후부터 조선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음식문화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실물로서 그 변화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김홍도나 김득신의 풍속화와 같은 회화 작품이나 조선시대 말기의 수저, 그리고 일부 남은 사진 자료를 참고 하면 일반 서민들도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식탁에서 숟가락을 버리지 못한 것이 고려시대 원 간섭기에 유행하게 된 「국」 때문이라는 연구 성과를 감안하면⁵⁸⁾ 조선 후기에 들어서 젓가락 사용이 일반화되게 된 것은 음식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숟가락만 있어도 밥과 국을 먹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는 식탁을 유지하였으나 음식물이 다양화되면서 젓가락의 필요한 식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음식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식의 성립은 조선후기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치의 발달과 아울러 각 계층의 음식이 섞이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는 신분질서가 엄격해 왕실과 양반, 그리고 서민들의 식습관이 섞이지 못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신분질서가 흔들리면서 평민들의 지위가 높아지자 음식문화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궁중식이 양반식에 영향을 주고 그 양반식은 다시 평민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⁵⁹⁾ 또 조선 후기에 이르러 외국에서 많은 식품이 수입되고 서서히 정착하게 된다. 고추를 비롯하여 후추, 호박, 고구마, 감자, 옥수수, 낙화생, 완두 등과 같은 다양한 식품들이 유입되고 수박이나 사과, 토마토, 녹두나물 등도 들어오게 되어 참으로 다양한 식품들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조선의 음식도 아주 다양해지고 그 조리법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많은 조리서들은 대개 17세기 중반을 지나거나 18세기 이후의 것들인데⁶⁰⁾ 그것은 새로운 음식문화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젓가락의 사용이 보다 일반화되는 과정에는 성리학의 발달에 의한 가례가 집집마다 행하여졌던 것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16·17세기에 들어서 각종 예서의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곧 예속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朱子家禮』를 줄이거나 한글로 바꾸어 보급한 것이나 『家禮諺解』 『喪禮諺解』 『家禮喪葬三禮諺解』 등은 유교식 의례를 확산시켜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례에

58) 정의도, 「고려시대 청동숟가락」 『한국고대숟가락연구』, 경인문화사, 2014, pp.265-269.

59) 강인희, 「제3장 조선후기시대의 식생활-한식의 완성시대」 『한국식생활사[제2판]』, 삼영사, 1993, pp.287-300.

60) 이성우, 「제3편 조리 및 식품가공서」 『식생활사 문헌연구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p.279-398.

최준식·정혜경, 「조선시대, 한식의 완성」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pp.90-139.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저는 그 모양도 일원화되어 갔겠지만 그 사용도 점차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이러한 추정은 조선 후기 유교의례가 확산되어 가면서 성립되는 음식의 발전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김치의 정착과 발전을 예로 들 수 있다.

김치는 조선전기에 들어 유교 의례 음식으로 포함되게 되지만 조선 후기 들어 성리학적 시스템에 입각한 의례사가 김치의 확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김치는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유교의례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고려시대까지 국례의 음식으로만 확인되던 저채가 조선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저(菹)라는 한자어가 16세기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과 우리말 김치의 한자 표현인 침채(沈菜)가 제사용으로 쓰이게 된 배경도 유교 의례문화의 보급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즉 조선 후기 사회의 특유현상으로 유교적 의례문화와 특유의 조선적 김치문화가 성립되고 저변화된다는 것이다.⁶²⁾ 그러므로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성립되고 확산된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유교의례는 앞 시대의 가치기준을 부정하거나 변화시켜 유교사회에 적합한 하나의 가치기준에 적합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거나 기물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일부 집안이나 또는 일부 가문에서만 사용되던 젓가락도 하나의 가치관에 따른 동참이 이어져 젓가락의 사용도 점차 확산되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대부분 구한말에 사용되었거나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임진왜란 전까지의 장속이 일변하여 분묘에 부장하는 부장품이 모두 사라지고 백자 사발 한 점에 상평통보 한 두점을 넣거나 그나마 아예 넣지 않는 장속으로 변화하고 만다. 말하자면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하는 장례풍속이 조선 전국에서 시행된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의 발굴조사에서 묘광만 남아 있거나 또는 목관의 흔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런 부장품이 없는 분묘, 또는 내부에서 아무런 유물도 확인되지 않은 회곽묘는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자료로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구체적인 변화를 기늠하

61)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는 유교식 제례문화를 왕실은 물론이고 일반백성들에게도 널리 퍼뜨렸다. 제례문화의 보편화는 당연히 제상에 희생물로 오르는 짐승들의 수료를 증가시켰으며 아울러 제사에 따른 음복문화는 육류의 소비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하는 조리법의 발달을 가져오기도 하였다.(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음식을 통해 보는 조선시대·조선사람』 가람기획, 2006, pp.19-23)

62) 박채린, 『조선시대 김치의 탄생-조선시대 김치문화의 성립과 김치 식속의 다면성 연구』 민속원 아르케스007, 2013, pp.11-19, pp.101-154.

기는 어렵다. 다만 토산물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조선시대 말기-구한말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조선시대 후기 19세기, 이르면 18세기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 들면 -17세기 말~18세기- 숟가락의 술이 원형으로 변하게 되고 자루각은 거의 0도에 가까워지는 한편 젓가락도 상단의 잡는 부분의 단면이 방형으로 정착이 되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들게 되며 크기는 숟가락이 20cm 내외, 술잎은 4cm 내외, 젓가락은 18cm 내외로 오늘날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⁶³⁾

V. 맷음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정치 이념이 성리학으로 바뀌었고 성리학적 가치를 현실세계에 실현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이어졌을 것이다. 고려시대까지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많은 양의 도자기를 부장하는 풍습은 고려시대 이래 중국 북방민족과의 교류에서 시작된 것으로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대변하는 장례서인 주자가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고려시대 이래의 장속이 변화하여 새로운 장속이 정착되기까지 전쟁과 기아 등의 상황을 합하여 200년이 넘게 소요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장속은 일변하여 분묘에 수저를 부장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 백자 사발에 상평통보 한 두점이 부장품의 전부이고 그나마 아예 넣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한 장속의 변화에도 숟가락은 조선시대 전체의 밥상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장속은 변하였다고 하여도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주로 하는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조선전기 젓가락의 사용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이 나고 경신대기근을 지나 18세기에 들어 영정조시기 정국의 안정은 임란이후 조선에 유입된 새로운 음식물의 등장과 유교 제례의 보급으로 조리법의 발달과 새로운 조리서의 발간으로 이어지며, 김치나 젓갈과 저장음식의 발달 등 당시의 밥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풍속화에 젓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은

⁶³⁾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식생활-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2007, p.76, p.79.

젓가락의 사용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젓가락 사용의 확대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리학의 발달로 가례가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는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가례에 있어 사용하는 그릇이나 도구, 음식들이 일원화되어 간다는 것으로 가례에 있어 음식을 덜거나 옮기는데 필수적인 젓가락 또한 그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 투고일 2016년 1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9일 ■

참고문헌

<사서>

『高麗圖經』 『世宗實錄』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朱子家禮』

<도록>

<단행본>

간송미술관 소장, 『김득신평속화첩』

강인희, 『한국식생활사[제2판]』, 삼영사, 199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기-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집 제41집, 200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기』 연구자료집 제 41집, 2008.

국립고궁박물관, 『종묘』, 2014.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을 격물하다』, 2011.

_____, 『새로운 만남 백제의 목기』, 2010.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식생활-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200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단원풍속도첩』

_____, 『고려왕실의 도자기』, 2008.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음식을 통해 보는 조선시대·조선사람』, 가람기획, 2006.

奈良國立博物館, 『第40會 正倉院展』 昭和 63년, 1988.

_____, 『第54會 正倉院展』 平成 14年, 2002.

_____, 『第67會 正倉院展』 平成 27年, 2015.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新發見 高麗青磁 - 韓國水中考古學成果展-』 日韓國交正常化50周年記念 國際交流特別展, 2015.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고려인의 영원한 삶 단양 현곡리』 발굴성과전, 2009.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기산김준근조선풍속도』, 2008.

윤방언, 『조선왕조 종묘와 제례』, 문화재청, 2002.

이난영,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992.

이성우, 『식생활사 문헌연구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이해원, 『중국의 음식문화』 학술연구총서 73,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정의도, 『한국고대술가락연구』, 경인문화사, 2014.

진홍섭 편저, 『국보 5.공예』, 1985.

최준식·정혜경,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통도사성보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명품도록』, 1994.

_____,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유물 명품』, 2014.

<논문>

정의도, 『한국고대청동시저연구-고려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7.

_____, 『청동순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8.

_____, 『무령왕릉 출토 청동시저연구』 『선사와 고대』, 한국고대사학회, 2009.

_____, 『송은 박익선생묘 출토유물의 고고학적 해석』 『선사와 고대』 제 33호, 2010.

_____, 『경남지역 조선전기 순가락연구』 『문물』 창간호, 한국문물연구원, 2011.

_____, 『조선시대 분묘출토 유물의 지역성-김해구산동유적과 은평 진관동유적의 비교연구-』 『문물』 제2호, 한국문물연구원, 2012.

_____, 2013, 『조선후기 순가락의 변화』 『문물』 제3호, 한국문물연구원

<보고서>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구산동유적-고려·조선묘군(4)-』, 2009.

_____, 『김해 구산동유적-고려·조선묘군(5)-』, 2009.

_____, 『진주 무촌Ⅱ-고려·조선묘군(2)-』, 2004.

_____, 『진주 무촌-고려·조선묘군(1)-』, 2004.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장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06-24.10), 200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 옥포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달성본리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본문-사진-』, 2007.

공주대학교 박물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염창리고분군(본문)(도판)』, 200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흥사Ⅲ』 학술연구총서 제52집, 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조사보고서 태안마도1호선』, 2010.

_____, 『수중발굴조사보고서 태안마도2호선』, 2011.

_____, 『수중발굴조사보고서 태안마도3호선』, 2012.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남양주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I)-조선시대 분묘군-』 학술조사보고 제 21책, 2001.

동아대학교 박물관, 『밀양고법리벽화묘』 고적조사보고 제35책, 200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창원시,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하) 고려시대~조선시대』 발

- 굴조사보고서 제29책, 2009.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무령왕릉』, 1973.
- 삼강문화재연구원, 『창녕 영산 서리 조선묘군-창녕 영산 서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본문, 도면, 사진』, 2012.
-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단양현곡리 고려고분군』, 2008.
-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산 신대·부적 조선묘군』 학술조사보고 제25책, 2008.
- _____,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묘군 I』 학술조사보고 제19책, 2008.
- _____,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묘군 II』, 2008.
- 전남대학교 박물관·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쌍촌동 주거지』, 1999.
- 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시, 『전주 유상리유적』, 2007.
- 중앙문화재연구원·SH공사·두산건설(주)·금호건설(주), 『은평뉴타운 제2지구C공구 내 은평 진관동분묘군IV』 발굴조사보고 제156책, 2009.
- _____, 『은평뉴타운 제2지구C공구 체육시설부지내 은평 진관동분묘군VI』 발굴조사보고 제167책, 2010.
- 중앙문화재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논산시, 『논산 원북리유적(본문)(도면)』, 2001.
- 충청문화재연구원, 『서천 옥남리유적(날머리 I·II 유적·갯재골유적·원개들유적·우아실유적(본문)(사진))』, 2008.
- 한강문화재연구원·SH공사·금호건설(주)·삼성물산(주)·대우건설(주), 『서울 진관동 유적III』 유적조사보고 제11책, 2010.
- 한강문화재연구원·SH공사·동부건설(주)·포스코건설(주), 『서울 진관동유적II』 유적조사보고 제9책, 2010.
- 한강문화재연구원·SH공사·현대건설(주), 2010, 『서울 진관동유적IV(2권)』 유적조사보고 제16책.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 2007, 『인천 원당동유적(I)』
-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청원 오창유적(I)-본문-사진-』, 1999.
- _____, 『청주 용암유적(II)-본문-사진-』, 20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문화재연구원, 『부산 고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촌유적(I 지구)-본문·부록-도면·사진-』, 2010.

Abstract

Use of Chopsticks during Joseon Dynasty reflecting the archaeological evidences

Jung, eui-do

The biggest social event during the novel Joseon Dynasty would be the introduction of the Neo-Confucianism to the social system and political ideology, and there must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accept the new concept in their society.

The tradition of Goryeo which buried diverse objects such as spoons, chopsticks and celadon to the tombs had been commenced since Goryeo was highly involved with the Northern people in China. According to the Confucian Ritualism, however, which was main initiative of Joseon idealism of that time, the tradition of Goryeo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Joseon. In the meantime, the tradition of the funeral had kept changed since Goryeo, and this took more than 200 years to settle the funeral system of Joseon.

During the late Joseon, the tradition of funeral had been changed which buried less spoons or few white celadon and coins into the tombs. To a certain extent, no more burial goods were usually found in the tombs. Although the funeral system had been changed,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spoons were still the main utensils of din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the primary dining composition was still rice, soup and dishes.

From the evidence found in the tombs, the usage of chopsticks of early Joseon was quite rare. After the Japanese Invasion, Manchu Invasion and Great Famine, Joseon's cuisine from the ingredients to diet, preserving techniques and publication of new recipe had been introduced in 18th Joseon.

Given the painting which was drawn in this period, people who hold

chopsticks were the solid evidence that chopsticks were highly used in this period. Also it is presumed that chopsticks were developed with the normalization of auspicious confucian ceremony. During the ceremony, the utensils such as dishes, tools and foods seem to be unified which resulted the requisite use of chopsticks for the ceremony.

Key Words : Chopsticks, Spoons, Joseon Dynasty, Japanese Invasion, Tradition of Goryeo, Neo-Confucianism, Ritual Ceremony, paintings